



보도 일시	2022. 12. 9.(금) 13:30	배포 일시	2022. 12. 9.(금) 10:30
-------	-----------------------	-------	-----------------------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팀 장 김완수 (044-215-5360)
	국가결산체계개편팀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kahn6158@korea.kr)

## 최상대 제2차관,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9일(금)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서면)를 하였음
- 최상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회계 도입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가결산보고서의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음
  - 국가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으로, ①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로 변화, ②다양한 시각에서 결산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활용도 개선, ③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작성 등을 주요 개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
-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2.16(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2차관)를 통해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계획임

### 정부회계학회 학술대회 개요

- (일시·장소) '22.12.9(금) 13:30~18:00, 국회 의원회관
- (주제)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와 혁신
-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이달곤의원실

	발제내용	발제자
발제①	▶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	김완희(가천대)외 2명
발제②	▶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	정도진(중앙대)

<참고 1>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참고 2> 행사 개요

---

# 축 사

---

2022. 12. 9.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 상 대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입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정부회계학회 20주년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태동 정부회계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행사를 함께 준비하신  
이달곤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빈들과도 함께 자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회계학회는 중앙·지방정부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가는 매 순간마다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11년부터 재무제표를 국가결산서에 포함시켜  
처음으로 발표하기까지  
여러 제반 이슈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20주년 기념행사는  
정부와 정부회계학회가 함께 노력해 온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미래도 같이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 발생주의회계 도입 성과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회계시스템 도입은

현금주의회계에 기반해 온 재정관리의 시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래 잠재적 부채인

연금총당부채\* 등을 산출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1회계연도 기준 연금총당부채 1,138조원(재무제표 부채의 51.7% 차지)

또한,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계기로

기존에 개별법 하에서 각자 관리되던 국유재산, 물품 등이

자산대장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국가자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정착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재정통제\*가

발생주의회계 기반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재무결산을 준비하여

재정지표의 국제간 비교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에도 빠지지 않을 만큼

시의성 있는 결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IMF(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OECD(PSDS, 공공부문 부채 D2, D3)

### 3 발생주의회계 개편 방향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아직도 보완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중심의 결산서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결산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주석 등 설명자료를 통해 결산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최대한 결산서에 담아 다양한 시각에서 결산을 분석하고 재정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를 만들겠습니다.

주요국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의 결산환경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재무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기업 활동의 언어’ 라고 합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회계라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주주, 채권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만큼 회계는 기업의 활동을 충실히 담아야 하고  
동시에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여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의사소통’ 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회계도  
유려한 언어는 아니더라도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정부 재정활동의 언어’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결산이 정부의 이해관계자인 국회, 국민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정부회계학회에서도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부회계학회 2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

## 행사 개요

- 일시: 12.9(금) 13:00~17: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 주제: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와 혁신
- 주최: (사)한국정부회계학회, 이달곤 국회의원실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일정
13:30~14:20	<b>개회식 및 시상식</b> (사회: 김성환 광운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회사: 김태동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li><li>○ 환영사: 이달곤 국회의원</li><li>○ 축 사: 우원식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li><li>○ 시상식: 정부회계인상(기관4, 개인2)</li></ul>
14:20~15:40	<b>발 표 1: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b> (사회: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 발표: 김완희 교수(가천대), 신유호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정수 대표(씨앤에프시스템) 토론: 최진혁 교수(충남대, 좌장), 김동욱 교수(제주대), 엄태호 교수(연세대), 최우성 팀장(행안부),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15:50~16:40	<b>발 표 2: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b> (사회: 박상연 배재대 교수) 발표: 정도진 교수(중앙대) 토론: 권선국 교수(경북대, 좌장),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최연식 교수(경희대), 김완수 팀장(기재부), 박성진 소장(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6:50~17:30	정부회계학회 총회 차기회장(성시경 단국대 교수) 인사 및 차차기 회장 선출 등